

“그날 이후”

‘핑’하는 굉음에 놀라 거실로 뛰쳐나갔을 땐 이미 일이 벌어지고 난 후였다.

1983년 12월 한해가 거의 저물어갈 무렵. 당시 두살박이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외출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날은 절친한 친구가 결혼을 앞두고 신랑을 소개하는 날이었기에 월례행사 정도로나 하는 외출을 감행했다.

노루꼬리 만큼이나 짧은 겨울해를 놓치지 않으려고 서둘러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언 몸을 녹이려고 아랫목에 손을 문으니 싸늘하게 한기가 올라왔다. 외출직전 갈아놓은 연탄불이 꺼질까 염려되어 막아놓은 공기구멍 탓에 되레 꺼지고 만 듯했다. 당시 신혼2년생이었던 나로서는 연탄불을 꺼뜨리지 않고 끝까지 남김없이 다루는 일이 무엇보다 어려웠다. 허름한 13평 서민아파트에 등지를 틀고 있었던 우리로서는 연탄 한장도 선불리 대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그런 이유로 연탄을 아낀다고 하다가 꺼뜨리는 일이 허다했다.

그날도 바로 그런 우를 범한 날이었다. 불씨가 없어 냉기마저 느껴져오기에 창문커튼을 재삼 여미면서 바라본 건너편 아파트

뒤로는 벌써 저녁해가 넘어가고 있었다. 퇴근시간이 다가오며 서둘러 저녁준비를 해야했다. 우선 아이를 내려놓고 출지않도록 전기스토브를 키고는 칭얼거리는 것을 달래기 위해 텔레비전을 켰다. 부리나케 쌀을 씻어 전기밥솥의 전원을 키고, 똑배기만한 전기쿠거에는 저녁찌개거리를 담아 간을 대략 맞추었다.

허둥지둥 저녁식사를 준비한 것은 남편의 퇴근시간에 맞추기 위해서이기도 했지만 마침 태기가 있어 심한 입덧으로 보름 남짓 제대로 식사를 못해오다가 겨우 식욕을 되찾은 후였기 때문이다. 대강의 저녁준비를 끝마치고 방에 들어가 아이에게 우유를 먹였다. 폭음이 울린 것은 바로 그때였다. 전기가 나가고 섬광같은 불빛이 번쩍하고 지나갔다. 그리고 곧이어 전선타는 고약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혼비백산해서 거실로 나가보니 변압기가 폭발해 불이 붙어 있었다.

그때 심정을 어떻게 얘기할까. 흠족한 단어를 찾을 수 없다. 놀란 아이가 울어대고 매케한 냄새와 불길을 보자 이제 끝났다하는 절망이 마음속에 회오리쳤다. 여러세대가 사는 아파트에 불길이 확산된다면…… 아! 우리 가정은 현재는 물론 미래 또한 기약할 수 없다는 두려움에 몸조차 가누기 어려웠다. ‘어떻게 해……’ 하며



이 순 흥



발만 동동거리며 바라보다가
아득해져오는 정신을 가다듬고
걸치고 있던 스웨터를 벗어
트랜스를 덮어 불을 꺼갔다.

다행히 폭풍우는 지나갔다.
온몸을 조이던 잠시간의 긴장이
풀어지며 가져본 안도와 방안을
가득 매우던 고요를 내 평생 다시
그때만치 절절히 느낄 수 있을까
싶다.

화재원인은 두말할 필요 없이
변압기의 용량초과였다. 전기
밥솥과 전기쿠커 등을 한
콘센트에 꽂아쓴 게 탈이었다.

소위 전기의 과부하로 인해
일어난 화재였다. 요즈음 같은
때야 가구마다 따로 설치되어진
트랜스를 구경하긴 힘들지만
당시 우리가 살던 아파트는
오래된 탓에 220V를 110V로
바꿔 사용하기 위해선 가구마다
트랜스를 구비해야 가능했다.
참으로 다행한 것은 아파트
내부가 목조가 아닌
시멘트벽이었다는 점이다. 만약
목조였다면 트랜스 내부의
코일이 다 타고 불길의
밖으로까지 나왔던 당시

상황에서 아마도 큰 불로 번졌을
것이다. 만약 그렇게
되었다면……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사람들은 매우 놀란 경우에
10년 감수했다고 말한다. 누구든
입버릇처럼 이같이 말하나
그들중에 실제로 그말에 담겨진
의미만큼 충분히 느끼며 쓰는
사람은 많지 않으리라 생각된다.
나로서는 10년으로는 부족할
정도였다. 그래서 그 사건이후
한동안 이웃사람들에게 50년은
감수했다며 강조해 말하곤 했다.
화재를 겪어본 사람이라면
이것이 아무 과장없는 솔직한
표현임에 동감하리라 본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 화재가
나에게 남긴 가장 큰 상처는 당시
내가 임신 3개월의 몸이었다는
사실이다. 물론 그 화재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나 간접적인
이상은 전혀 없었다. 충격으로
인해 혹시나 뭐가 잘못되진
않았나 하는 걱정으로 다음날
병원을 찾았으나 의사의
진단으로도 아무 잘못된 점은
없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아이가 잘못되어 비정상아로
태어날지도 모른다는 불안을
떨칠 수 없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결국 임신중절을 하고
말았다. 불의 무서움은
누구나가 잘 안다. 그러나 실제로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피상적으로나 알고 있기에 그 정도가 조금은 덜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허나 그렇다해서 실제로 겪어 그 실체를 안다는 것은 결코 피해가야할 일이다. 그것은 곧 정신적으로 또는 육체적, 경제적인 피해를 입고 난 후야야 가능한 얘기이기 때문이다. 어려운 시절이 지나간 지금. 옛일을 적으면서 내내 부끄러웠던 것이 있다. 내 자신이 공과대학에서 전기공학을 전공하였기에 당시 내가 겪었던 화재정도를 예견 못할 만큼 전기에 관해 무지하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결국 알기만 했지 실행할 줄 몰랐으니 설사 전기에 관해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한낱 걸치레에 지나지 못했다는 얘기가.

4년 전의 화재결과 나는 아주 귀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실행의 중요함을 절감, 이전 불조심이 생활화되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지난 1987년에는 '방화관리자' 자격증소지를 위한 강습을 받았다. 이 교육에서 전기로 인한 화재가 전체 화재발생의 30%를 차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전기취급에 대한 주의를 다시한번 가다듬게 되었다. 그중에서도 4년전 화재의 원인이 된 전기의 과부하가 전기화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화재원인의 다음순위인 불장난과 유류취급 부주의를 염두에 둔다면 결국 화재의 대부분은 부주의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언젠가 화재예방에 대한 심층취재를 다룬 TV 프로그램에서 한 방송리포터가 집들이를 갈 적엔 무엇보다 소화기를 선물하는 것이 좋겠다고 얘기한 것이 인상적이었다. 더불어 소화기사용법도 함께 익혀둔다면

좋겠다고 생각된다. 또 예기치 못한 화재예방을 위해 보험을 들어두는 것도 불시에 닥칠지 모를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다.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선 화인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리라. 선전문구처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바로 불조심이다. 불날자리 표시없고 불날시간 예고없기 때문이다. ☹

